

2008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 자치단위 연대

yeoyeon.cyworld.com

자치규약 영상과 함께 보는 反성폭력 이야기

2008 여성 문제를 고민하는 연세 자치단위 연대

yeoyeon.cyworld.com

<자치규약의 의의>

왜 우리는 자치규약을 이야기할까요?

성평등 자치규약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현실적인 피해와, 이것에 대한 고민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새터/OT마다 갖가지 성폭력 사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그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해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은 공동체를 나갈 수밖에 없는 이중의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인지한 채,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우리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 성평등 자치규약인 것입니다.

성평등 자치규약은 누군가의 통제로서의 규율이 아닌,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인들의 관계맺음을 더 즐거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자율적 성격의 규약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것들에 문제제기하고 상황과 맥락에 따라 누군가에게 폭력으로 가해질 가능성을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관계맺음에 대해 성찰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자치규약을 통해 서로 다른 우리들은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서로 다른 경험과 조건을 인정하며 함께 공존하기 위하여 합의해야 할 지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 합의점은 우리의 즐거운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논의할 수 있고, 함께 조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영화에서 따온 장면이니만큼 각각의 장면들이 영화 흐름 속에서 가지고 있는 맥락과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이 정확히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모두가 즐거운 문화를 상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으로 생각해보는 학내 문화>

영상①

누구는 1등, 누구는 2등, 누구는 꼴등. 이 영상에 나오는 "여자는 명품, 진품, 반품"의 구분. 낯익지 않으세요? 사람 얼굴과 몸을 갖고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는 것은 치기 어린 아이들의 장난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생활공간으로 사용하게 될지도 모르는 (학회, 동아리에 가실 분도 계실테니까요 ^_^) 과방, 반방 안에서 이런 순위매기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전해드리게 되어 참 마음이 그래요. 특히 새내기들이 들어오면, 외모를 토대로 한 순위 매기기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집니다.

남학생 순위 매기는 건 괜찮냐구요? 물론, 아니죠. 타인의 외모,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심지어 서열을 매기는 것은 여/남 할 것 없이 문제적 이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내 외모와 다른 친구의 외모를 비교하면서 누가 더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기준에 걸 맞는지 평가하고 있는 장면. 여자든 남자든 다른 이를 '물건'처럼 대하는 이런 행동은 고쳐져야 마땅합니다.

게다가 여성에게 외모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외모 이외에도 다양한 장점과 특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사회는 여성의 '외모'를 최고의 가치 평가 기준으로 두면서 다른 모든 능력들을 상쇄시키죠. 유난히 여성 정치인의 외모와 옷차림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 사람의 해당 업무에 대한 능력은 무시되는 현 사회의 시선에서도 이는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이 외에도 외모지상주의적인 시선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외모를 갖도록 강요하지요.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무서운 '다이어트 열풍'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타인을 서열화할 수 있는 물건 취급하고, 존중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순위매기기. 우리의 일상공간에서 없애나가야 합니다.

영상②

거부하는 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다는 여자를 억지로 제압하고 강제로 키스하는 남자.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요? 온갖 드라마, 영화, 광고 등에서 하도 자주 나타나는 키스 장면이라 식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장면들을 상상하고, 이를 '낭만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상대방이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낭만적이라는 것, 이상하다고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사실, 연애관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주도적인 남성과 수동적인 여성의 모습은 권장되고, 그렇게 되도록 강요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이 역시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여/남에 따른 이분법적인 역할일 뿐이고, 하나의 잘못된 통념일 뿐입니다. 이를 '당연한 것'인 양,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도만이 정상인 양 정당화하기 위해 연애의 로맨스, 낭만으로 포장해 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의 역할을 성별만을 통해 두 가지로 무 자르듯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또한 '싫다'는 말을 싫다고 듣지 않고 억지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키스를 강제로 시행하는 것은 절대 낭만이 될 수 없습니다. 여자의 NO는 내송이라는 말도 안 되는 편견은 성적인 행위를 완력으로 강제하는 남성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기 싫다는 사람에게 억지로 '키스'하는 남성의 행동은 엄연히 성폭력입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상황을 낭만적인 상황으로 포장하다니. 참 이상한 연애 판타지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에서라면 폭력을 통한 강제적인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영상③

신기해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이성애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유치원 때부터 여자아이, 남자아이 손 잡혀놓고, 동성끼리 친밀해 보이면 "사귀냐?"고 놀리고, 동성애자들은 정신병자, 변태, 비정상이라는 편견이 난무하는 세상이니깐요.

하지만 분명한 점은 이 세상에는 동성애자를 포함한 비이성애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자기 주변은 모두 이성애자일 거라고 “가정”하지요. 그래 놓고서는 “뭐 그 사람들 일이니까 나랑 상관없지만, 난 그건 조금 싫어”란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개인의 의견’이라며 말하지만 그냥 느낌만으로 이유나 근거도 없이 “싫다”고 하는 것은 혐오(포비아)입니다. 그리고 당사자를 두고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폭력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아무런 이유 없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싫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영상의 다음 장면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오빠와 술을 마시면서 레즈비언이 신기하다던 수진(김민정)에게 오빠는 자신이 게이라고 커밍아웃을 합니다. 결국 김민정은 동성애자를 앞에 두고 동성애혐오 발언을 마구 해댄 것이죠.

이런 상황은 학내에서도 빈번합니다. 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반이나 동아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모두가 이성애자라는 어디서 온지 알 수 없는 ‘확신’ 아래 동성애혐오발언 혹은 트랜스젠더혐오발언이 빈번하게 나오지요. 너무나도 강력한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에서 동성애/트랜스젠더 혐오발언은 일상적으로 비이성애자들에게 폭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터나 OT처럼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혐오발언이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동성애/이성애로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겠지요.

영상④

이 사회는 유독 여성에게만 ‘문란’하다는 꼬리표를 붙여줍니다. 성경험이 많은 남성에게는 ‘걸레’라고 비하하는 대신에 능력이 좋다고 평가하죠.(이는 카사노바가 매력적인 남성의 이미지라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때문에 남성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성경험을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일이 많습니다. 반면에 여성은 되도록 숨기려고 하지요. 여성에게 문란하다는 ‘창녀’의 낙인은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쫓겨질 정도로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여성에게는 정조라는 덕목이 중요하게 부과되어서 한 남자하고만 성관계를 맺어야 했던 반면에(열녀비를 세움으로써 사회적으로 권장하기도 했)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 자치단위 연대

지요) 남성은 언제나 여러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에 그리 커다란 제약이 가해지지 않았습니니다.(기방, 첩) 이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남성중심적인 사회가 여성의 성(욕망)을 규제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특히 문란한 여성에 대한 낙인과 더불어 돈을 받고 여러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낙인 또한 여성의 성(욕망)을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니다. 가장 천시 받는 성매매 여성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을 안 받고 한 남성과만 성관계를 맺는 여성, 바로 아내입니다. 결국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에게는 순결을 강조하고 성적으로 자유로운 여성들을 낙인찍는 것 모두 여성의 성(욕망)을 통제하는 중요한 기제입니다.

대학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으로 자유로운 여성은 소문이 되기 쉽고, ‘문란하다’라는 낙인을 통해 공동체에서 퇴출당하기 쉽습니니다. 반면에 남성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적지요. 모두가 평등한 관계에서 성관계를 하고 말고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이제껏 여성에게 강요되었던 순결이나 문란하다는 낙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⑤

웃는 남성들의 모습에서, 연애 ‘진짜로’ 한 것 아니냐는 말 속에서, ‘따먹혔다’며 반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학생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가해라고 하면 일상과 동떨어진 무언가를 생각하기 쉽지만,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2차가해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주변인들에게서 너무나 쉽게 나오는 이러한 언행들이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폭력으로 다가옵니다. 남성중심적인 이 사회에서는 성폭력 사건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려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은 없는지 끊임없이 자책하게 만듭니니다.(강도당한 사람은 자신을 자책하지 않습니니다.) 또한 성폭력 사건 자체가 원치 않게 가십처럼 공개되었을 경우에도 남성중심적인 이 사회에서는 피해자가 소문을 건디기 힘들어 공동체에서 나가게 되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니다. 때문에 주변사람들의 잘못된 언행을 2차 가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 자치단위 연대

아, 오해는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에 나온 행동만 안하면 2차가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폭력 사건에서의 2차 가해는 '이 행동만 하지 마라'는 식으로 도식화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큰 틀에서 말하자면 성폭력에 대한 물이해를 기반으로 한 대응들이 2차 가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을 떠벌리고 다니는 것도, 피해자의 경험을 부정하는 것도 가해자의 입장에서 구성된 성폭력 사건에 익숙해져 있고, 그대로 이를 답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상과 같은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답니다.

영상⑥

이 사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진한 화장, 긴 머리카락, 치마, 밝고 화려한 색깔의 레이스가 많이 달린 옷, 각종 장신구들. 그렇다면 짧은 머리에 화장을 안 하고, 단순한 어두운 색의 상의와 바지를 입은 여자는 여성이 아닌 건가요?

이 사회는 사람을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어 일정한 특성들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진짜' 여성(혹은 남성)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지요. 결국 여성에게 대학 올라왔으니까 "살 좀 빼야겠다" 라든가, "이제 좀 꾸미고 다녀야지." 라든가, 고학년이 될수록 "화장 안 해?"라는 말하는 맥락은 남자를 여장할 때 필요한 것들을 강요하는 맥락과 같이 합니다.

벌칙으로 여장남자가 남장여자보다 훨씬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여자가 남장을 하는 일은 창피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반면에, 남자가 여장을 하는 것은 창피한 일로, 부끄러워 할 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에게는 바지를 입는다거나 '남성스러운' 특성들이 비교적 허용되는 데 반하여 남성들에게는 치마를 입는 것처럼 '여성스러운' 특성이 특이함을 넘어 남자를 망신시키는 수치스러운 일이 됩니다.(같은 남자들에게 비난받기까지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오랜 역사동안 전 사회적으로 여성을 '인간'의 범주에서 배제하며 혐오하고 남성연대를 구축해온 남성중심적 사회의 일면을 살펴 볼 수 있죠.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 자치단위 연대

여장남자는 왜 웃길까요?

웃을 때에는 매우 다양한 지점들이 섞여서 작용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고 꼬집어 말하긴 어렵지만 제 상상력 안에서는 이 정도가 사람들이 여장남자를 보고 웃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① '스타'의 여장남자를 환호하는 팬 ② 남성이 여장을 했을 때 창피해하고 보여주기 싫은 부끄러운 일이 되는 "벌칙"으로서의 즐거움.(보통 이럴 때의 여장남자는 립스틱을 떡칠하고 가슴에 풍선넣고, 행동거지도 과장되게 하는 등 여성성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현한다.) ④ 너무 완벽한 '여성'이 되었을 때의 놀라움과 원판에 대한 감탄 (외모지상주의) ⑤ 여장을 했는데 남성적인 특성으로 여겨지는 (어깨나 다리털, 콧수염, 다리 짝 벌리고 앉기) 행동을 했을 때, 성역할 규범이 깨지는 것의 즐거움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규범을 깨는 행동들은 웃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웃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성역할 규범을 지키도록 만든다. ⑥ 여성스러움을 욕망하는 남자들에게는 대리만족의 즐거움. (여장남자가 매우 당당히 자신의 욕망을 표출할 때 주로 가능하다.)

모든 웃음을 일반화시키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터나 OT같은 공간에서 하는 여장남자에 문제제기하는 지점은 앞에서 말했듯이 여장남자를 보고 웃는 그 과정 자체가 결과적으로 여성스러움을 강요하고 그렇지 못한 여성들을 놀리고 웃어도 되는 '진짜' 여성이 아닌 존재로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상⑦

언제나 문제는 그거예요. '술' 그 자체가 아니라, '술'을 둘러싼 것들이 문제이지요.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 상황에서 왜, 어떻게 술을 마시게 되는 지(맥락이라고도 하지요)에 초점을 맞춰서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이 영상과 '똑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어딘가 모르게 유사한 상황들은 끊임없이 내 옆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술 마시기 싫은데 옆에서 따라주는 사람, 먹으라고 재촉하는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 자치단위 연대

우, 학번이 높은 경우 이를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고 학번이 높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갖고 되는 권력은 술자리를 비롯하여 FM, 벌칙 등에서도 폭력적으로 나타납니다. 싫은데 싫다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는 권력의 우위를 점한 자(나이가 많은 자, 학번이 높은 자 등 권력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에 의한 언어적, 정신적인 폭력이 가능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또한 술자리에서는 술에 취한 것을 핑계로 아무런 동의 없이 은근슬쩍 어깨에 손을 올린다던지 손을 잡는다던지 하는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술을 권하지 말 것을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약 나이나 학번, 성별권력을 이용해 강제로 술을 먹이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 문제제기가 가능하도록 해야겠지요.

<노래 가사 생각해 보기>

"(여) 엉엉 울 때엔 날 그냥 내버려두기. 내가 투정부릴 땐 말없이 껴안아주기.
(남) 술이 취해 전화를 걸어도 화내지 말기. 남자들의 세계는 절대로 넘보지 않기." -김동률 <욕심쟁이>

-연애 관계에서 서로 원하는 돌봄의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남자들의 세계는 넘보지 말라'고 할까요? 남자들의 세계라고 할 때 대부분 어떤 것들을 떠올리니까?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남자들간의 연대는 어떤 방식을 통해 공고히 되고 있을까요?

"절대로 울지 않아. 난 남자기 때문에 절대로 울지 않아. 난 남자기 때문에. 너 대신 내가 맞아. 난 남자기 때문에. 너 대신 내가 맞서. 난 남자기 때문에"

- 드렁큰타이거 <남자기때문에>

- 이 가사 내용처럼 무조건 '울지 않고' 무조건 '내가 대신 맞고' '내가 대신 맞서'는 남학생들은 적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남성에게 울음은 참아야 하는 것, 여성과의 관계에서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주는 사람으로 그 역할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성이 남성보다 '약하기 때문에' 더 울어도 되고, 더 보호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빠가 여동생의 짧은 치마나 통금시간을 강요하는 것이 여성이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것일까요? 세상이 무섭기 때문에 여성은 밤길을 돌아다니지 못하게 '보호'해야 하는 걸까요?

- 오티와 새터 때 과,반 구성원 사이에 꼭 지켜야 할 사항들, 여기에서 같이 만들어봐요!

예) 새터에서 이야기방 만들기, 술 강권하지 않기, 흡연구역 정하기 등등